

Sermon Notes:

서론: 가장 일반적이고, 정당화되고, 널리 범해지는 죄?

자기 의: 거만, 위선, 교만에 섞여 있음 → 판단의 죄로 발전
자신들은 전혀 변화가 없음: 자신보다 다른 사람부터 생각

본론:

1. 판단의 죄

가. 알게 모르게 행해왔음

나.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심

마 7:1-5: 희망사항이나 권면이 아닌 예수님의 명령

다. 판단과 정당한 분별력은 다름 (예: 마태복음 18 장)

2.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

가. 두 가지 특징적인 행동

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전달

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도 자신도 같은 죄를 범함

나. 결과

하나님께서 행위대로 보응하심 (v.6): 심판 vs 징계

3. 하나님의 판단 기준

가. 진리대로 판단 (v.2): 외모로 판단치 않으심

나. 행한대로 판단 (v.6): 율법을 가짐과 행함은 다른 문제

다.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판단 (v.16): 심판주로 오실 주님

4.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심판 → 믿음, 열매, 판단 대신 사랑

자신을 돌아야 함 → 회개 (그렇지 않으면 진노를 쌓음)

결론: 우리 모두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낮아져서 비판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십시오!

암송구절: 로마서 2 장 13 절

‘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’

Memo/Reflection:

1. 어떤 상태가 나를 가장 비판적이 되도록 만드는가?
2. 가장 최근에 비판한 사람은 누구?
3. 비판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은 온전한가?
4.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신다고 생각?